

여수 김미선 아라움 대표, 해양수산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산물 튀김 '튀엔포' 개발 유럽·미국·중국 등 수출

“수산물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만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남도에서 나는 수산물로 다양한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 선보이겠습니다.”

여수 김미선(사진 오른쪽) ㈜아라움 대표가 2023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했던 수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인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자로 김 대표를 발굴해 추천했으며 김 대표는 8월 1차 심사를 거쳐 11월 해양수산부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대표는 30년간 수산식품을 가공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단순가공과 2차 가공을 넘어 원물 맛을 살리는 튀김 형태 등의 다양한 가공기법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한 매출 상승, 수출 증가 등 성과를 거뒀다.

또 2020년부터 유럽 아마존, 미국 코스트코 등에 입점하고 튀김식품 수출을 위해 자체 브랜드인 '튀엔포'를 개발해 미국,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상표등록하고 현지 판촉행사,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전국에서 3명이 선정됐으며 20일 충남 보령 마르테마파크에서 열린 제7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기념식에서 신지식인 인증서와 해양수산부 장관 상장·상금을 수여했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2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남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에도 전국 4명 중 전남은 2명으로 1위(대상)와 3위(우수상)를 차지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GIST 설립 30주년 기념 외국인 초청 '문화의 밤' 행사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이하 지스트)이 최근 설립 30주년을 맞아 주한대사 및 영사 초청 행사인 'GIST International Day'와 '외국인 문화의 밤'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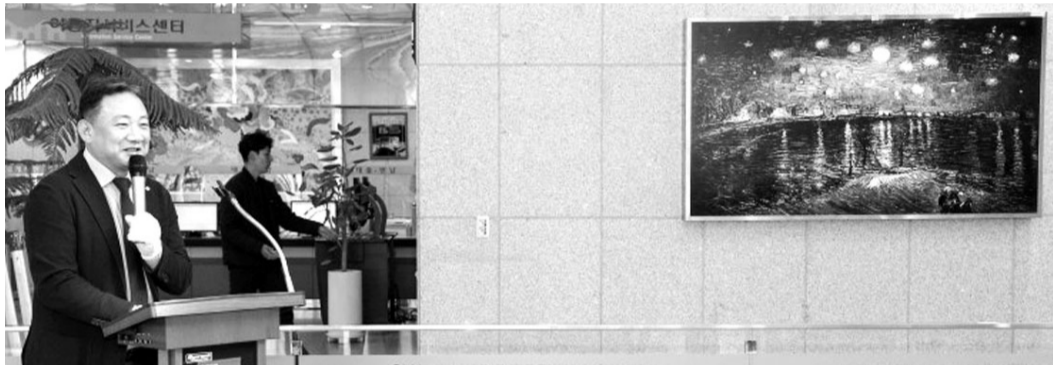
이날 라오스 쑹간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 루카스 파베스 주한 칠레 부대사, 킵코스케이 토로이티취 주한 케냐 대사관 대리 대사 등 8개 주

한 대사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GIST의 설립 30주년을 축하했다.

외국인 학생 교류의 장이자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GIST 외국인 문화의 밤'도 함께 진행됐다. 38개국 240명의 외국인 학생과 지역민들이 각국 전통 음식·의상·놀이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이이남 작가, 조선대 중앙도서관에 작품 기증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20일 이이남 작가로부터 미디어아트 작품을 기증받아 중앙도서관 1층에 설치 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기념식에는 이이남 작가와 민영돈 총장, 공진성 대외협력처장, 임성철 중앙도서관 관장, 윤혜숙 부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작가가 기증한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를

디지털로 재해석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다.

그는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주겠다고 생각했던 고흐의 작품을 통해 후배들에 희망을 전하고자 이 작품을 기증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작가는 현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기념전 '세계기록유산, 인류의 빛이 되다'에 작품을 전시 중이다. 오는 25일에는 네덜란드 반고흐 뮤지엄 개관 5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받아 참여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NCCK 회장에 윤창섭 목사

진보성향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0일 윤창섭(사진) 금마복음교회 목사를 제72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NCCK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극심한 양극화와 자본에 의한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더욱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회협은 가난한 자와 약자, 소수자 편에 더욱 굳건히 서서 모든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일치와 연합을 위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총무와 부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기독교서회 이사, 희망나무도서관 대표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대 오예은씨, 산학협력 EXPO 영상콘텐츠 공모전 대상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오예은(사진)씨가 최근 열린 산학협력 EXPO에서 산학연계 교육과정 영상 콘텐츠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오 씨는 지난 8월 전남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3.0)' 일환으로 실시한 '제4회 오아시스 해커투 대회'를 이끌었던 경험을 영상으로 제작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 씨는 오아시스 연합의 총괄 리더를 맡아 8명의 팀원을 구성했고 7개 대학과 21개 참가팀, 참가자 109명을 이끌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영애, 가자지구 분쟁 피해 어린이 구호 성금 5000만원



배우 이영애(사진)가 가자지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긴급 구호를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1일 이영애가 '이스라엘-가자지구 교전 피해 어린이 지원'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아동 의료 지원과 구호품 전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애는 "국경을 넘어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참상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0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다크 인사이드(재)	0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주니토니아가기	00 애니 갤러리 30 꼬미미너 리라 45 헬로키티 X
12	00 KBS 뉴스 12	15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5 MBC 희망프로젝트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휴먼다큐 마냥 아름다운 우리맘
1	0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이 맛에 산다 55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어린이 동물티비			00 뉴스브리핑
3	20 팔도방송(재)	00 KBS 뉴스타임 15 반지의 비밀일기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재)	55 5 MBC 뉴스	00 7학년 주식회사 시즌2 40 도시락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내 친구 미소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광주MBC특별기획 레드디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KBS광주 특별음악회 - 오감	50 우아한 제국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살리는 남자들	00 오늘도 사랑스럽게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15 열녀박씨 계약결혼엔 길라잡이 30 라디오스타	40 옆집 남편들-녹색 아버지회
11	3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고려 거란 전쟁(재)		
12	00 시사기획 창(재) 50 다크 온(재)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KBS 드라마 스페셜 2023(재)	1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3 미라보기 2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KBC 문화가중계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웃기는 처음 영어(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10 다이노스터(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다크영웅 길 위의 인생	19:00 한국의 둘레길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07:15 시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귀하신 몸(재)
17:30 엄마 까투리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타이완이 좋다〉
08:00 당동당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오래된 것이 좋은 이유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35 한국기행
08:50 레인보우 버블젠	16:40 당동당 유치원(재)	〈가을 채우다 3부 부자의 공간〉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7:00 페파 피그	21:55 왔다! 내 손주
09: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10 마사와 곰	22:45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뒤죽박죽섬의 빅포털리 쇼츠	-클래스 UP! 교실을 깨워라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쇼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2일(음 10월 10일 甲申)

<p>36년생 파격적인 변화는 향후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48년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이어야만 타케할 수 있겠다. 60년생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흠집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72년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84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뤄야 큰 것을 얻는다. 96년생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하여 당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67</p>	<p>42년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54년생 꼭 만나야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니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보라. 66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78년생 상방이 상충적이어야만 오래 지속될 것이다. 90년생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이 안전하다. 02년생 부담스럽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8, 83</p>
<p>37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내야 한다. 49년생 과감한 결단이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61년생 다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73년생 지금은 급한 형세이니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수용하고 볼 일이다. 85년생 틀실하게 보였던 것이 허탈 것이다. 97년생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행운의 숫자 : 26, 95</p>	<p>43년생 잘 되어갈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5년생 파종은 힘들더라도 결실의 기쁨은 클 것이다. 67년생 오늘의 부실함은 미래에 약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79년생 오로지 못할 나무라고 볼 수 있으니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안전하겠다. 91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이 있어야. 03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0, 73</p>
<p>38년생 의외로 더디게 진행되는 형상이 비친다. 50년생 이대로라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62년생 안주하려 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해 보자. 74년생 하늘의 도움이 클 것이니 품은 뜻을 펼쳐 볼 수 있는 때이다. 86년생 주대를 갖고 소신껏 행하면 협조자가 생기기라. 98년생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아픔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2, 97</p>	<p>44년생 사소한 것은 차치하고 큰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다. 56년생 가까운 이들의 평을 되새겨 보면 유익할 것이다. 68년생 탈출구를 모색하더라도 쉽지않은 양을 것이니 각오하고 인하라. 80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나. 92년생 꿰뚫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다. 04년생 공허하여 그 어떤 실속도 없다. 행운의 숫자 : 21, 72</p>
<p>39년생 혼란이 따르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51년생 가장 실질적인 면에 매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63년생 힘들겠지만 결실이 많고 알할 것이다. 75년생 오매불망하며 기다려 왔던 바에 보람이 있을 것이다. 87년생 육자지껄하게 떠들어 대고 있는 국세로다. 99년생 일부러 나서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9, 71</p>	<p>45년생 제의받거나 첫 관례를 맺을 수다. 57년생 근본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69년생 재물이 즐비하니 취하는 이만이 입자가 되리라. 81년생 배분과 할애를 잘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93년생 이렇게 저렇게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받아들여도 별 말 없다. 05년생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니 계속 밀어붙여라. 행운의 숫자 : 04, 58</p>
<p>40년생 임시적인 방편으로 도모한다면 무의미하다. 52년생 교육은 퇴보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주인이 될 것이다. 64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76년생 의외의 돈을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88년생 공전에 단 한번도 잡하지 못하였던 특이한 양상이 비친다. 00년생 바람직한 조건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4, 77</p>	<p>46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46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바다로 나아가는 위상이다. 58년생 공감하였다고 해서 공동 행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70년생 제반사에 과감한 결단과 적절한 실행이 필요하다. 82년생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행함이 가장 무난하다. 94년생 넓은 마당으로 나가리라. 행운의 숫자 : 16, 98</p>
<p>41년생 다목적의 대응이 가능하여지도록 하자. 53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니라. 65년생 결과 속이 꼭 찬 모습이니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77년생 급히 반전되는 국세이니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89년생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낫다. 01년생 장기적인 등록원이 되어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51</p>	<p>35년생 사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로 판단해야 한다. 47년생 구체적인 언급이 수반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59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도 치를 수 있는 법이다. 71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순탄한 판국을 조성할 수 있다. 83년생 생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양호하리라. 95년생 생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행운의 숫자 : 39, 81</p>